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정보통신공학교	이름	김XX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오사카 가쿠인 대학교	파견기간	2023.08.21 ~ 2023.12.21
귀국여부	2023.12.21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위치는 오사카 시내로부터 전철로 20분거리의 외각에 위치에 있으며 규모는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으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시설은 헬스장, 도서관, 식당 등등 편의시설은 다 있습니다. 주택가 근처에 있어서 근처 분위기는 조용하며 근처에 학생들 및 회사원들이 즐겨먹는 식당이 많아서 밥 걱정은 없습니다.</p>
2023-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모든 학생이 매일 오전 9시부터 11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오전 수업은 문법 위주의 수업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9시부터 10시까지 한자 수업을 합니다. 오후 수업은 선택 수업이며 저는 일본어 작문 수업과 회화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작문수업은 한자공부 및 독해를 하며 과제로는 독해에 관련된 자기만의 생각을 작문으로 적습니다. 매주 1회 수업이며 한자 시험이 매일 있습니다. 회화수업은 말 그대로 일본인 및 유학생들과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합니다. 과제로는 다음 수업에 말할 주제로 일본어로 대본작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이외의 오후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였습니다.</p>
-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처음 일본에 가면 숙소 신청했던 숙소에가서 짐을 풀고 다음날 학교 관계자 및 집주인이랑 시청에 주소등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3일뒤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 및 수업방식을 설명해 줍니다.</p> <p>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유학생들과 유학생들의 버디인 일본인 친구들과 관광명소에 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양한 이벤트와 소식은 국제센터 직원들 및 버디를 통해 알려줍니다. 참여여부는 자유이며 개인적으로 외국인 친구와 친해질 기회가 이런 프로그램밖에 없어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대체적으로 날씨는 따듯합니다. 제가 8월에 왔을 땐 한여름이었으며 11월 초까지 날씨가 더웠습니다. 11월 중순쯤 되면서 가을 날씨가 됐으며 12월 초까지 가을 복장으로 다녔습니다. 이번에 유학 와서 패딩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따뜻합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오사카 남부 쪽은 치안이 안 좋지만 남바 또는 우메다 쪽 시내는 대체적으로 안전하며 학교근처도 조용하며 살기 좋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제가 살던 곳은 학교근처에 있는 Ariyama woodhouse이며 학교까지 걸어서 6분거리에 위치에 있습니다. 근처에 편의점과 마트가 있어 장보는데 있어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woodhouse는 목재 건축이라 방음이 잘 안 되어있으며 오래된 건물이라 여름에는 벌레가 자주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숙소를 고르실 땐 학교 근처의 숙소 이외인 곳을 추천 드립니다. (ex: 신오사카, 우메다 등) 가격차이도 별로 안 나며 숙소 퀄리티도 매우 좋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식은 대체로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먹었지만 학식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메뉴도 다양해서 먹기 좋았습니다. 학교 근처 식당도 학식만큼 저렴하고 맛있는 곳이 많이 있어 즐겨먹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저는 학교 근처에서 살아서 걸어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시내에 갈 때는 학교 근처에 큰 역이 두개가 있어서 편했습니다. (JR, Hankyu) 학교 근처 이외에 사는 학생들은 학교 역에서 2~3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았으며 다들 정기권을 사서 등하교를 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6,000,000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400,000	식비, 쇼핑, 여행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여행자 보험 (실비 포함 x) : 150,000원</p>

숙소	Ariyama Woodhouse	월세:420,000원 (4개월:1,680,000원)
식비	학식, 외식, 직접 요리	월 : 500,000원 (4개월:2,000,000원)
교통비	쇼핑, 여행	대략 300,000원
책값	문법, 한자	40,000원
기타1		
기타2		
합계		4,02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전체적인 수업이 다 일본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과 아메리카 친구들은 처음에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있어 영어도 어느정도 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한 학기라 너무 짧아서 아쉬운 느낌이 많지만 그래도 돈 주고도 못할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일본의 일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와서 한 것이 국민연금면제 신청인데 내일모레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면제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은행계좌 개설 및 마이 넘버 카드 발급 같은 일은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서 직접 시청 및 우체국에 가서 제출을 해야 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 외의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정말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게 되어 좋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위해 영어 공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며 많은 유학생 친구들과 사귀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많은 유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 일본어 회화 능력이 처음보다 실력이 훨씬 늘었으며 한자 실력도 미흡하지만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매일 조금씩 한자공부 및 영어공부를 해서 일본어 및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오리엔테이션</p>	<p>첫 교외활동</p>
	
<p>교외활동2</p>	<p>포스터세션</p>
	
<p>종업식</p>	<p>뒤풀이</p>